

Cüm 나눔교리

자가진단 후

보완사항

Ver.2016.10.20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1. Mind 영역

- 나눔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부합한 준비 상태를 체크합니다. (나눔교리의 목적 인식, 준비성, 책임감 등)

1) 항목별 첨언

No	내용
1	나눔교리가 주입식 교리전달이 아니라 스스로의 나눔을 통한 신앙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	나눔교리의 진행자는 동반자의 역할이지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 ↳ 교리 진행자의 직무는 자신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가톨릭교회의 ‘믿을 교리’와 ‘지킬 계명’을 학생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눔교리 진행자에게 요구되는 방법론이 있다. 그것은 주입식 수업방식을 지양하고 나눔과 체험(실천)의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나눔교리를 기반으로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가운데 가톨릭교회의 교리 및 정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안을 준비해야 하는 진행자는 나눔교리의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동반자(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리 진행자 입장에서 청소년을 대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가르치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No	내용
3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준비하는 나눔교리 연수 및 자료에 관심을 가진다.
4	일주일에 1회 이상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을 찾아본다.

- ↳ 나눔교리는 주일의 복음 말씀에 대한 청소년들의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며, 동시에 말씀과 연관된 현실을 빚대어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 방법론의 변화를 추구하고 배워야 한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를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 : www.puna.kr

No	내용
5	개인적인 일정과 교리시간이 겹칠 경우 교리시간을 우선순위에 둔다.
6	교리시간에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에 교리가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준다.
7	나눔교리 3-4일 전에 담당 청소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긴다.

- ↳ 진행자는 청소년과의 만남의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행자는 교육의 지속성과 신뢰성, 연계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주일학교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교리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진행자는 부득이하게 결석을 할 경우 교리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교리를 부탁할 다른 진행자와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한다.
주일학교는 진행자와 청소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의 장’이다. 따라서 진행자는 청소년을 주일학교의 ‘약속의 장’으로 초대해야 한다. 성인보다는 자제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일학교 3-4일 전에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복음과 나눔 주제를 미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No	내용
8	매주 교리 준비를 한다.
9	CÜM 매뉴얼을 읽으며 준비한다.
10	교안을 작성하여 신부님이나 수녀님, 교무주임 등에게 검토를 받는다.
11	모르는 교리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책을 찾아 확인한다.
12	동료 선생님들과 미리 나눔교리를 해 본다.

↳ 교리교안은 교리수업 2주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뉴얼에 따른 교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교안은 지도자(교무주임, 수녀님, 신부님)에게 검토를 받는다.

교리교안을 작성할 때는 진행자 스스로가 충분한 복음 목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눔 주제에 따른 내용과 예화를 숙지해야 한다. 만일 교리교안 작성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검증된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예 : 가톨릭대백과사전, 굿뉴스, 마리아사랑넷, cbck)

진행자는 동료교사와 나눔교리를 선행했을 때, 청소년과의 나눔교리를 더 잘 이끌 수 있다.

No	내용
13	CÜM 교재를 받으면 ‘하늘에서 온 편지’ 공란에 편지를 적어 담당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준다.
14	청소년들이 오기 전에 교리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다린다.

↳ 교리내용만큼이나 교리환경도 중요하다. 교재의 ‘하늘에서 온 편지’에 편지를 적어주면,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쓴 편지가 담겨있으므로 교재를 함부로 버려놓지 않게 된다.

교리 전 교리실을 준비하라. 깨끗한 교리실과 여기저기 어질러진 교리실, 둘 중 어느 곳에서 나눔이 더 잘 되겠는가? 어질러진 물건들은 정리하고, 불을 끄고 초를 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다. 단, 교리실 문은 꼭 닫아 외부와 단절된 공간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꼭 환기를 시켜야 한다면 복도 쪽 창보다는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을 열고, 커튼을 치도록 한다.

No	내용
15	교리 전,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다.

↳ 나눔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힘임을 기억하고, 교리 전에 함께 해주심을 청하는 기도를 한다.

2. Skill 영역

- 나눔교리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체크합니다.
(내용의 이해, 전달, 교재 활용, 진행 태도 등)

1) 항목별 첨언

No	내용
1	청소년들이 교리실에 들어올 때나 출석을 부를 때에 친근하게 안부 인사를 한다.

- ↳ 청소년들이 교리시간을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자가 먼저 노력하라. 친근한 인사와 출석을 부르며,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에 근거(나눔교리 기록지 참고)하여 근황을 물어주면 좋다.

No	내용
2	나눔교리는 50~60분에 끝낸다.
3	나눔교리의 구성을 알며, 각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4	나눔교리 기도와 성경을 읽기 전 기도를 바친다.
5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최대한 천천히 읽는다.
6	복음에 기초한 문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복음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
10	복음의 핵심 주제 및 나눔교리 주제를 정성껏 준비하며 설명한다.

- ↳ 나눔교리 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리교안을 준비하면서 철저한 시간 분배를 계획한 후에 상황에 따른 적용을 해야 한다.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적용은 교육의 지속성을 방해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교리시간은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복음의 핵심 주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눔교리 내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교리를 정리 할 때는 진행자의 신앙적 배경과 함께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적용해서 설명해야 한다.

No	내용
7	나눔교리를 할 때 나의 어투는 권유하거나 의향을 묻는 식이다.
8	진행자이지만 나눔에 참여하고, 발표자가 없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소재로 나눔을 유도한다.
9	청소년들의 나눔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끝까지 듣는다.

- ↳ 진행자는 청소년들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나눔교리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진행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이 요구는 권위자이거나 제삼자의 모습을 말하지 않는다. 진행자는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참여자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 발표해보자.” 라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진행자는 청소년의 나눔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과 얘기하고 공감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라.

No	내용
11	나눔교리를 하면서 별난교리, 짬, 당나귀 및 여러 부록 등을 활용한다.

- ↳ 나눔교리의 내용만으로도 교리수업을 하기에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CÜM 교재에 다양한 콘텐츠를 실는 이유는 나눔교리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그러므로 진행자는 CÜM 교재 전체를 정독 한 후 나눔교리 교안을 준비할 때 활용하면 된다. 예로, 나눔교리 시작기도를 하늘편지 또는 힐링 그래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뽀뽀교리의 게임이나 만들기를 활용하여 나눔교리 말씀 다지기를 대체할 수 있다. 그 외에 콘텐츠 역시 복음의 주제 또는 성월과 연관된 것들로 제작되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CÜM 교재는 청소년들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 자료는 미션 수행 및 숙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No	내용
12	나눔을 할 때, 청소년들의 나눔 내용을 교안록에 요약, 기록한다.
13	나눔교리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하고, 다음 주에 확인한다.
14	나눔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로 한다.

- ↳ 나눔교리 기록지를 활용하라. 나눔을 지속적으로 정리해보면 그 청소년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기록지를 꼼꼼히 읽고 주중에 무슨 일이 있다면, 잘 되었냐고 묻는 안부 연락을 해주고, 다음 주 교리 때 청소년이 먼저 말하기 전에 그것이 잘 되었는지 물어보면 좋다.
- 나눔교리 때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실천사항을 정하라. 실천사항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해야 한다. 정한 내용은 소리 내어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지에 적어두어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한다.
- 나눔교리 진행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는 나눔 이야기를 비밀로 해야 한다. 나눔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그것은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에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속내를 나눌 수 있도록 철저히 비밀로 지켜짐을 모두에게 인지시키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라.

No	내용
15	교리 후에 결석한 청소년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전한다.

- ↳ 진행자는 결석한 청소년에게 관심의 일환으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할 때 못 온 것에 대하여 추궁하듯이 물어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는 올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라. 이런 연락을 통해 청소년이 오든 안 오든 관심 없는 교사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라.

3. Heart 영역

- 나눔교리 안에서 맺어진 진행자와 청소년간의 관계 유연성을 체크합니다.
(청소년의 이해, 친교, 소통, 대화, 관심, 문제 공유 및 적극성 등)

1) 항목별 첨언

No	내용
1	나는 청소년기 특징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를 익히고 문화를 체험한다.
5	나는 청소년들과 SNS나 문자, 메일을 통해서 연락한다.
7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대화나 행동으로 함께 해결한다.
11	교리시간 이외에 성당 밖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

- ↳ 나눔교리는 주입식 교육 방법이 아닌 공감과 소통의 교육 방법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진행자는 청소년과 함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나뉘야 한다. '나눔'은 서로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진솔한 애기가 오고간다. 따라서 진행자는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콘텐츠를 연구하여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음악, 게임을 경험해 보면 좋다. 청소년의 삶의 자리와 그들만의 공감 카테고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행자는 교리시간 외에도(성당 밖) 청소년과의 관계 맺음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No	내용
3	내가 담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

- ↳ 진행자는 청소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눔교리는 신앙을 나누는 것이므로 기도가 가장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개개인을 파악한 후 개별 지향을 두어 기도해야 한다.

No	내용
4	내가 담당하는 청소년들의 이름과 세례명, 성격과 특징 등을 전부 적을 수 있다.
6	나는 담당하는 청소년들 개개인의 고민과 문제를 알고 있다.

- ↳ 진행자는 최소한 담당 청소년의 이름, 세례명, 성격, 특징 등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진행자의 기본 소양이다. 진행자는 나눔교리 교안 '기록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일기해야 한다. 일기한 내용은 다음 나눔을 위해 기억해야 한다.

No	내용
8	청소년들의 나눔에 감동한 경험이 있다.
14	청소년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 ↳ 진행자가 만나는 청소년은 신앙을 나누는 동반자이다. 실제로 청소년은 신앙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행자는 청소년을 신앙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No	내용
9	(청소년 진행자 경우)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나눈다. (교사 진행자 경우) 나는 청소년들과 매년 면담을 한다.
10	(청소년 진행자 경우) 나는 친구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편이다. (교사 진행자 경우) 나는 담당 청소년들의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다. 청소년 개개인의 가치관은 가정에서부터 형성된다. 따라서 진행자는 청소년의 가정에 대해 전반적인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만일 그 과정에서 진행자가 담당 청소년에게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지도자(신부님, 수녀님)와 상의하고 면담 및 기타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No	내용
12	청소년들이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할 때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한다.
13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있음을 의식하여 어른보다 더 기다리며 배려한다.
15	나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거나 성당에 나오지 않는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시기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발전이 이뤄지는 시기이므로 감정 조절 능력이 때때로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진행자는 감정 조절이 힘든 청소년들을 대할 때 여러모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진행자는 매번 감정 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은 교사회 회의 때 논의하거나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나의 감정보다는 청소년에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청소년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이기에 성인보다는 감정의 변화에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4. Faith 영역

- 나눔교리에 대한 스스로의 신앙적 확신과 내면화 정도를 체크합니다.

1) 항목별 첨언

No	내용
1	진행자로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4	나는 예수님께서서 청소년들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는다.
5	나눔교리를 통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혹은 제자라고 생각한다.

↳ 진행자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진행자는 스스로의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No	내용
2	나눔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이라고 믿는다.
3	나눔교리 시간 전체가 기도시간이라고 믿는다.

↳ 나눔교리는 교리지식만을 청소년들에게 전해주는 시간이 아니다. 서로의 신앙체험과 생각을 나누며, 스스로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시간이다. 진행자는 교리실에 들어가기 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꼭 하며, 함께 해주심을 스스로 굳게 믿어야 한다. 진행자는 가르치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분이라 여기고, 동시에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자.

No	내용
6	말씀듣기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묵상한다.
7	복음이나 나눔에 감동과 위로를 받은 체험이 있다.
8	나눔교리를 준비하면서 기도와 성체조배 등을 한다.
9	나는 복음의 핵심 내용과 주제에 따른 해설의 내용을 연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10	나눔교리를 하면서 삶의 모토로 삼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다.
11	나눔교리를 통해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14	나눔교리를 하면서 나의 신앙도 자라고 있다.
15	개인적으로도 신심활동(평일미사, 봉사활동, 묵주기도 등)을 하고 있다.

↳ 다시 강조하지만, 진행자는 교리지식과 교수법의 기술이 요구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진행자 자신의 신앙 고백이며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나눔교리는 개개인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리교안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선행 작업을 할 것을 권고한다. 신앙생활은 청소년을 만나는 시간에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행자는 말씀과 친숙하기 위한 매일 묵상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평일 미사와 교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No	내용
12	나눔 후, 기억에 남는 청소년을 위해 기도한다.
13	나눔교리 후, 나의 언행을 성찰하고 감사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

↳ 진행자는 청소년들이 나누는 나눔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억했다가, 시간을 내어 청소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미사 와 묵주기도, 성체 조배와 화살기도의 형태로 청소년을 기억할 수 있다. 진행자는 나눔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언행을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교리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진행자는 학창시절 오답노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언행노트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언행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개개인을 향한 자신의 편향적 태도도 발견할 수 있다.

5. Vision 영역

- 나눔교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정도를 체크합니다.
(문제 인식과 대안 제시 능력, 발전적이며 건설적인 안목 등)

1) 항목별 첨언

No	내용
1	나눔교리를 하지 않는 다른 이(본당)에게 소개하고 싶다.
2	나눔교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다.
3	나눔교리에 대한 질문을 청소년 사목국에 문의한 적이 있다.
4	나눔교리 자체에 대해 다른 진행자들과 논의를 한다.
5	나눔교리의 순서나 방법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진행하기도 한다.
6	나눔교리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7	나눔교리는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신앙인 양성에 효과적인 접근이다.
8	(청소년 진행자 경우)친구들과 함께 하는 나눔교리를 통해 청소년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교사 진행자 경우)교사들과 함께 하는 나눔교리를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9	나눔교리는 청소년의 인격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10	나눔교리는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된다.
11	나눔교리가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다른 교리방식보다 도움이 된다.
12	나는 진행자로서 자질이 있다.
13	나는 나눔교리를 더욱 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있다.
14	나는 나눔교리에 대한 vision이 확실히 있다.
15	청소년 사목국에 나눔교리 연구팀(혹은, 교리 연구팀)이 있다면 참여할 것이다.

↳ Vision 영역에서의 진행자를 위한 첨언은 두 관점으로 한다.

하나는,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의 주일학교 교리운영 방침에 대한 일관적, 지속적, 연계적인 측면에서 교구와 본당은 사목 방침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일학교 사목의 대상자는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교회의 지도자(신부님, 수녀님, 교사)와 진행자의 방침에 따라 생각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진행자는 매년 달라지는 교육 방침과 교재 선정을 지양하고 주어진 교리교안을 토대로 '자기 교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국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리교안은 최초원고자의 교안이라서 진행자의 입장을 그대로 담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행자는 홈페이지의 교리교안을 토대로 자신의 교리교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또 하나는, 나눔교리는 완전한 교리형태가 아니다. 나눔교리가 태동한 이유는 주입식 방식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회의적인 사회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한다. 여전히 사회의 교육 방법론은 주입식 방법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공감과 소통의 교육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법 대신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론을 찾다가 현재의 나눔교리 방식을 연구했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청소년과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교육방법론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교육은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진행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소년 사목국으로 전달 해 줄 것을 청한다. 또한 교재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실천적 참여도 기대한다.